

PEOPLE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영산강정, 환경 e음 프로그램 진행 ‘노틀담 형제의 집’ 초등생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체험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8일 영산강청에 따르면 이날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광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환경 e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린이들이 환경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영산강청 직원과 노틀담 형제의 집 어린이를 1:1로 매칭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금호평생교육관-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화교육 강사 정보 교류 등 협약

광주 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은 8일 다목적실에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콘텐츠 협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준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문화교육 강사 인력풀 정보 교류, 문화교육교원 연수 멘토링 및 현장실습 운영 상호 협조, 성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공유, 광주시교육청 평생학습 어울 한마당 공동 홍보 및 참여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



서창농협, 어버이날 경로당 행사 25년째 진행…지역사회에 나눔

서창농협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28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8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5 어버이날 경로당 감사행사’를 펼쳤다. 서창농협의 어버이날 감사행사는 2001년부터 25년째 이어져온 대표적인 효 실천 행사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서창농협 임직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한편,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류, 음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명열 조합장은 “서창농협이 지역사회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며,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인도네시아 ‘아시아 정의와 권리’ 광주인권상 수상

동남아 군사폭력 등 진실 규명·평화 구축 앞장 심사위 “5·18정신과 맞닿은 인권운동 모범 사례”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동남아시아 인권 회복과 평화 구축에 기여한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가 선정됐다. 5·18기념재단과 2025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를 2025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 정의와 권리’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에서 국가 폭력과 대규모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규명, 정의실현,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특히, 군사적 억압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지역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며,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청년 활동가 양성, 인권 교육 등 이행과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별상 수상자로는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 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동체 권리를 옹호해 온 ‘DKK문화동맹’을 선정했다. 이들은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권운동을 실천해왔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아시아 정의와 권리의 활동은 침묵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기억과 책임,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동남아시아 인권 회복과 평화 구축에 기여한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가 선정됐다.

이러 “국가의 탄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을 통해 비판과 저항을 이어온 DKK문화동맹의 활동은 예술이 사회를 반영할 뿐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5·18정신과 맞닿은 인권운동의 모범

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별무대에서 개최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의 현장 가족돌봄 가치, 전국에 감동

무안군가족센터 대통령 표창·돌봄 유공자 3명 장관상 수상

전남의 가족돌봄 가치가 전국에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여성가족부의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무안군가족센터가 가족지원서비스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전남의 돌봄 유공자 3명이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안군가족센터는 2009년 설립돼 2024년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등 여러 가족서비스 공간을 한 건물에 통합한 생활 SOC 복합화시설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엔 공항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놀이쉼터’ 운영, 태국 피해자 유가족 대상 통역 지원, 분향소 자원봉사 활동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가족지원 활동을 펼쳐 모범을 보였다. 이날 기념식에선 또 무안군가족센터 신희정(아이돌봄 전담인력) 씨, 진도 강성민 서진도농협 조합장, 구례군 고경아 여성가족팀장이 각각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남지역 돌봄과 가족지원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전남에선 22개 가족센터가 운영돼, 도민이 가족 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무안군가족센터가 가족지원서비스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전남의 돌봄 유공자 3명이 장관상을 받았다.

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서도 전남이 선도적 가족정책과 총출한 돌봄서비스를 펼쳐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도 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부모, 1인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7000만원 기탁

광주신세계는 8일 대표이사실에서 ‘제30기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변경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가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7000만원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가 지역 인재들에게 전달한 장학금 누적액은 3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995년 지역과 상생하고자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는 희망 장학금, 희망 산타 원정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을 집중 지원하고자 ‘With Shinsegae’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을 신설했다.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5명씩 선발, 3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학생들은 장학금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 수강 및 학습 프로그램 구입 등을 하게 된다. 광주신세계는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을 통해 일회성 경제적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현지법인 광주신세계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올해 30주년을 맞았다”며 “다가오는 30년도 지역사랑을 실천하며 숭신수범하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따뜻한 나눔 ‘사랑의 한끼’ 대접

지역주민 250여명에 식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복구 임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 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됐으며, 약 250명의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양동민 기자 yang00@

행사에는 광주도시공사 직원 2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정성을 다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비롯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대표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동구, 확대간부회의 개최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8일 상황실에서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현안사항 및 논의과제 자유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동신대 여성최고위과정 모델 박돌선 씨 초청 강연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DS-TOGETHER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모델 박돌선 씨를 초청해 ‘자존심 그리고 스타일’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동신대